

“자유롭고 행복한 아시아 만들기 함께 노력”

차당선인, 수처 여사 만나 한국·미얀마 우의 다져

환경재단, 태양광전등 1000개 지원 ... 오늘 광주로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한 미얀마 민주화 운동의 지도자인 아웅산 수처 여사가 29일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을 잇따라 만나 양국 간 우의를 다졌다.

우선 수처 여사는 이날 오전 청와대 로비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회담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경제개발과 민주화는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특히 수처 여사께서 교육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니 미얀마의 미래가 밝다”고 말했다고 이미연 청와대 외신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또 “한국도 미얀마와 경제협력을 통해 젊은 사람들에 더 많이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수처 여사는 “교육 기회를 받지 못한 미얀마 실업 청년들이 많아 직업 교육이 절실하다”면서 “대학 진학과 같은 수준의 자신의 기술을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기술을 양성하고 싶다”고 답했다. 또 “한국에 미얀마 노동자들도 많이 진출할 수 있으면 좋겠다”며 양국 간 인적자원 협력 확대를 요청했다.

이어 수처 여사는 서울 통의동 대통령 당선인 집무실로 박 당선인을 찾아갔다. 이 자리에서 박 당선인은 “오랜 세월동안 조국의 민주주의를 위해 큰 희생을 하면서 헌신한 데 대해 경의를 표한다”면서 “더 자유롭

고 행복한 세계와 아시아를 만들기 위해 함께 힘을 합쳐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또 “개인의 행복을 포기하고 국민을 가족 삼아서 사는 인생이 어떤 것인지 잘 알고 있다”며 “버마(미얀마)의 민선정부 출범 후 미국을 비롯한 서방 여러 나라와 다각적으로 관계가 개선되는 모습을 의미 있게 봐왔다”고 덧붙였다.

수처 여사는 “버마가 민주화를 진전함에 따라 버마 국민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 사는 국민에 대해서도 노력할 수 있게 되길 희망한다”면서 자신들이 언급하는 평화와 번영은 자국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이날 오전 수처 여사는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환경재단 최열 대표 등을 만난 자리에서 “환경운동가들이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이루는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며 “인간끼리 싸워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환경재단은 이날 미얀마에 태양광전등 1000개(2억여원 상당)를 지원하기로 했다. 미얀마는 5명 중 4명이 전기를 사용하지 못하는 전력부급



“여기 앉으세요” 박근혜 당선인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집무실에서 미얀마 민주화 운동의 지도자인 아웅산 수처 여사를 접견, 자리를 안내 하고 있다. /연합뉴스

시급 국가다. 2013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의 초청으로 전남 방문한 수처 여사는 이날 강창희 국회의장과도 면담

한 뒤 오후 7시 평창에서 열리는 동계 스페셜올림픽 개막식에도 참석했다. 이어 30일엔 올림픽 부대 행사인

글로벌개발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기자회견에 참석한 뒤 오후 항공편으로 광주로 향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유감...”

박준영 지사 “총동적 선택 발언 혼란 줬다 ... 사과는 아니다”

“물세례 안주용 의원 제명 재고” 요청 ... 도의회선 제명 추진

박준영 전남지사가 지난 대선에서의 호남불표와 관련, ‘총동적 선택’이라고 한 발언에 대해 공개석상에서 처음으로 ‘유감’이란 표현을 사용했다.

또한 물세례 사건으로 전남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제명 의결한 통합진보당 안주용 의원에 대해서는 재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지사는 29일 오후 전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총동적 선택’이란 발언이 호남인을 비하했다는 것은 일부의 의견”이라며 “저의 진의와 달리 오해가 발생해 시도 민들께 혼란을 드린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자신이 받은 질문은 ‘불표를 주었는데 민주당이 패배했다...치유 방법이 무엇인가’는 것으로, 평가가 아닌 치유방안이었다며 민주당이 변하도록 우리의 뜻을 확실히 보여줄 자는 것이 발언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유감이 사과를 의미하는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사과로는 표현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좁은 짚어볼 가치가 있는 문제라고 생각해 한 발언으로 총동적 선택이란 발언의 배경에 대해서는 다음에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여운을 남

겼다. 박 지사는 안주용 의원의 제명 의결에 대해 “안 의원의 행동은 여러 이유가 있었지만 저의 발언에 대한 오해에서 출발한 것이고 짧은 정치인”이라면서 “(안 의원이)더 성숙한 정치인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하는 만큼 이번 제명결정을 의회가 재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박 지사는 이어 “저의 발언과 안 의원의 행위로 지역에 평화보다 갈등이 생기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국민이 우리 지역을 어떻게 볼지도 걱정이”면서 “사과가 이해하고 포용하며 이견이 있으면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박 지사의 기자회견은 지난 8일 모 방송국 시사프로그램에서 한 ‘총동적 선택’ 발언이후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지역 여론과 안 의원의 박지사에 대한 물세례 사건 후폭풍이 더 이상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박 지사의 유감 표현으로 총동적 선택 발언 여파는 일단락 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전남도의회가 예정대로 다음달 1일 본회의에서 안 의원에 대한 제명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빛의만평 - 김종두

짜고 치는 고스톱(?) 같아서, 원...

해수부 입지 어디? ... 이제 공은 국회로

세종시 유력 거론 속 전남·부산·인천 가세
인수위, 지역갈등 조짐에 정무적 판단 미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해양수산부의 입지 문제와 관련, 인수위 차원의 결론을 내지 않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수부 입지를 놓고 세종시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부산과 전남, 인천 등이 가세하면서 지역갈등 조짐마저 보이자 국회에 정무적 판단을 미룬 것으로 풀이된다. 인수위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인수위-새누리당 연석회의'에서도 해수부 입지에 관해서는 별도의 의견을 밝히지 않은 채로 정부조직개편

관련 790개 법률 개정안을 전달했다. 이에 따라 해수부 입지 문제는 국회의 여야 협의 과정을 거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박 당선인은 지난해 11월 부산을 방문해 해수부 부활을 약속하면서, 해수부를 부산에 두는 문제에 대해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부산 지역은 이러한 박 당선인의 발언을 근거로 해수부의 부산 유치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반면, 전남은 수산의 중심인데다

광양항과 목포항 등 항만 인프라도 충분하다는 점에서 해수부가 세종시로 가지 않는다면 여수나 목포, 광양에 유치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치권에서는 정부 부처간 업무연계성을 감안할 때 해수부가 세종시에 유치돼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세종시의 입주공간이 부족하다는 점을 들어 타 지역 입지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해수부를 분해해서 각 지역으로 보내기는 어려운 것이 아니라”며 “해수부는 세종시로 가는 것이 상식이며 정부나 정치권의 부담도 적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차당선인·광역단체장 ‘균형발전’ 논의

내일 시도지사협의회 간담회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31일 전국 광역자치단체장을 만나 지역균형발전 방안과 지역공약 등에 대해 논의한다. 박 당선인 측 관계자는 29일 “시·도지사들의 모임인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추과 모레(31일) 간담회 개최 예정 있다”고 전했다. 박 당선인이 대선 이후 광역단체장을 만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간담회에는 박준영 전남도지사 등 전국 광역단체장들이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강운태 광주시장의 경우, 아웅산 수처 여사의 광주 방문 일정과 겹쳐 참석이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 자리에서 박 당선인은 시·도지사들과 자신이 평소 강조해온 지역 균형발전 방안과 지역별 특화산업 육성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또 대선 기간에 약속한 지방 공약 등에 대한 청사진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시·도지사들도 박 당선인에게 지역별 공약의 조속한 이행과 지원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박 당선인 측 관계자는 “당선인이 그동안 각 지방이 맞춤형 발전을 할 수 있도록 가장 필요한 일을 하겠다고 얘기해온 만큼 이에 대해 시·도지사들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이며, 시·도지사들로부터 현장의 목소리도 청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각 부처로부터 당선인의 지방 공약에 대한 분석과 재원 예측 등을 보고 받고 공약 이행 방안 등을 당선인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062)384-9031
222-3700

2013 봄/방/학/시/즌/ 일본여행

오사카-무안

KOREAN AIR 전세기 취항

협찬: KOREAN AIR

정기편 + 전세기 편도

<p>2월 24일 ~</p> <p>큐슈온천 + 오사카 4박5일</p> <p>웨이(부산-큐슈) + 전세기(오사카-무안)</p> <p>₩ 849,000</p>	<p>2월 25일 ~</p> <p>큐슈온천 + 오사카 3박4일</p> <p>정기항공편(부산-후쿠오카) + 전세기(오사카-무안)</p> <p>₩ 899,000</p>	<p>2월 26일 ~</p> <p>큐슈온천 + 오사카 2박3일</p> <p>정기항공편(부산-오사카) + 전세기(오사카-무안)</p> <p>₩ 799,000</p>
--	---	--

왕복전세기

3월 1일 ~ 오사카, 나라, 코토 **딱찬 3일** 황금연휴 무안공항 이용 ₩ 1,150,000 ~

■ 여행코리아 062)233-2626 ■ 광성관광 062)228-4111 ■ 월드항공 062)225-2255 ■ 정투어 062)956-3979 ■ 투어뱅크 062)224-0022